

## 납품단가·할인지원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효과,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 3.18일부터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 확대(13→21개), 정부 할인지원을 상향(20%→30%)
- 3.21일 직수입 바나나·오렌지 초도물량 약 2,000톤 공급, 20% 낮은 가격으로 공급
- 한우·한돈 할인행사 3월말까지 지속, 3월중 닭고기 관세인하 물량 1천톤 추가 도입
- 오징어 방출 물량 200톤을 도매시장에 추가 상장하여 가격 안정화 유도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2일(금)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하였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가 함께 일일가격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총력 대응 중이며, 이번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지난 3.18일(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3.18일부터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 정부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한시 상향하여 유통업계 자체할인과 함께 소비자들이 최대 40~50% 인하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기존) 사과, 감귤, 토마토, 청양고추, 참외, 딸기, 파프리카, 오이, 애호박, 대파, 고춧가루, 배추, 시금치 (13개) → (추가)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깻마늘 등 (8개)

\*\* (예시) 사과 2,000→4,000원/kg, 딸기 1,600→2,400원/kg, 토마토 1,800→2,700원/kg 등

\*\*\* 3.21일~27일 할인품목 : 사과, 배, 대파, 시금치,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토마토, 상추, 파프리카, 깻잎, 당근 등 12개 품목 (매주 할인지원 품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또한, 어제(3.21일)부터 정부(aT)가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초도물량 약 2,000톤을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직수입 과일을 11개\*까지 확대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24개에서 29개로 늘리고, 물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신속히 완료하여 4월 중 추가 물량이 수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키위, 망고스틴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3월 나들이 수요 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3월말까지 지속 개최하고, 닭고기는 관세인하 물량 3만톤 중 잔량 1천톤을 3월 중 전량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은 기존 대중성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비축분 방출물량 600톤에 더해 이번주 오징어 추가 200톤을 도매시장에 직상장하고 민간 오징어 보유물량도 200톤 방출하는 등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다. 2월 주산지 기상 악화 영향으로 상승했던 대파, 시금치, 딸기 등은 가격이 하락했으며, 과일의 경우 사과·배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주보다 하락하였다. 소고기·돼지고기·오징어 등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전반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 , 전주비)**

<b>농산물</b> (3.21일 기준)	(사과)△13.1 (토마토)△13.4 (청양고추)△14.1 (딸기)△12.4 (파프리카)△18.5 (오이 <sup>다다</sup> )△21.2 (애호박)△17.3 (대파)△11.0 (고춧가루)△0.3 (배추)4.6 (시금치)△10.4 (배)△18.1 (키위)△3.4 (포도 <sup>샤인머스켓</sup> )△8.7 (단감)0.7 (깻잎)△11.1 (적상추)△11.3 (양배추)△2.4 (깎마늘)△6.7
<b>축산물</b> (3.20일 기준)	(한우 <sup>등심</sup> )△7.6 (돼지 <sup>삼겹살</sup> )△3.8 (닭고기)△4.4 (계란)△1.1
<b>수산물</b> (3.20일 기준)	(고등어)△5.8 (명태)△11.1 (오징어)△1.6 (참조기)0.0 (마른멸치)△2.4 (갈치)△14.9

\* 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농산물은 납품단가 지원품목(21개) 중 미조사 품목(감귤, 참외 등) 제외, 수산물은 대중성어종 6종 기준

정부는 이상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한편, 모든 부처가 물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경제정책국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	책임자	팀 장	김성철 (044-215-2931)
		담당자	사무관	신승헌 (happyhoney@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남기현 (khnams@korea.kr)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jaehunbb@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